

“제2 중동붐 물꼬 튼다”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, 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 원희룡 장관

- 2017년 이후 단절된 한-이라크 공동위원회 재개된다 -

- 카타르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방위 세일즈 외교 -

-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(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, 카타르)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'23. 1. 25. ~ 26.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
- 우선, 1월 25일(수)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(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)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만나 제9차 한-이라크 공동위원회(수석대표 :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)를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.
 -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-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'17년 제8차 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,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- 또한, 탈립 알 사아드(Taliv Abdulah Baeish Al-Saad) 이라크 교통부 차관, 하미드 알 가지(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-Ghazi) 이라크 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, 바그다드 경전철, 알 포 신항만 건설공사 등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.
 - 특히,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의 경우, 그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, 최근

정부예산안에 대한 내각, 의회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원 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이라크를 직접 방문하여 다수의 고위급 면담 및 네트워크 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.

- 원 장관은 이번 이라크 방문을 통해 바드다드 경전철 사업을 신정부 국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, 이라크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기업과의 사업 협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, 이라크측도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.
- 25일(수) 오후에는, 우리기업 한화건설이 수주하였으나 이라크 국내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현장을 방문, 당분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던 50여명의 한화건설 임·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방탄조끼까지 입어야 올 수 있는 이곳에서 고생하는 기업인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”면서, “금일 한-이라크 공동 위원회를 재가동키로 합의한 만큼,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정부가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직접 챙겨나가겠다”고 하였다.
- 또한, 25일 심야비행기를 이용하여 26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원 장관은 압둘라 알 수베이(Abdullah Al Subaie) 자치행정부 장관을 만나,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 유지 및 긴밀한 협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, 우리기업들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진행하였다.
- 도하 메트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기업 애로사항이 발주처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, 하마드 종합병원 보수공사, 카타르 학교 PKG 3, 도하 샤크 크로싱 등 자치행정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높은

관심을 전달하고 **인프라 분야 상호 협력**을 위한 자치행정부 장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.

- 한편, 압둘라 알 수베이 자치행정부 장관은 식량안보에 대한 카타르 당국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, 우리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 이에, 원장관은 **스마트팜·국토정보**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였다.
- 또한, 사아드 알 카아비(Saad bin Sherida Al Kaabi)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, 자심 알 슬라이티(Jassim bin Saif bin Ahmed Al Sulaiti) 카타르 교통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, 수소·풍력 등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 주요 프로젝트와 **철도 인프라 확충**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였다.
- 특히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, 원 장관은 **루사일 고속도로** 시공 후 발주처 인도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△△건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해결을 요청하였고, 알 슬라이티 교통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직접 담당자에 문제점을 바로 확인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.
-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이 한국의 영업사원이 되어달라고 지시한 가운데, 원 장관은 본인이 '제2의 영업사원'임을 자처하며, 대통령 UAE 순방 수행 이후, 설연휴를 반납하며 원팀코리아 사우디·이라크·카타르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동 3개국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,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사우디·이라크·카타르와의 인프라·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, 우리기업의 사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3. 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